

耽羅語研究 — 古代 日本語와의 比較*

第2部 耽羅語와 古代 日本語***

강 영 봉**

目 次	
I. 序 論	3. 基礎語彙 比較
II. 本 論	4. 分裂時期
1. 韓國語와 日本語	III. 結 論
2. 基礎語彙	

I. 序 論

이 글은 耽羅語¹⁾와 주변 언어와의 비교 연구의 시도로 쓰여진다. 이때 주변언어라 함은 한반도와는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말뚝 그대로 알타이諸語와의 비교 연구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주안점은 고대일본어와의 비교다.

탐라어를 가지고 주변 언어와의 비교 연구는 영성한 편이다.

남방계 언어와 아이누語와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어휘 대조 차원에서 행해진 바 있다.²⁾ 그러나 우리들은 선행 연구의 업적에 힘 입어 탐라어와 고대일본어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들자면 李基文에 의해 '고구려어의 경우, 中世國語·日本語 및 통구스諸語와의 사이에 音相에 있어서나 意味에 있어서나 현저한 一致를 보여주는 예들이 놀랍게도 많

* 이 논문은 198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2부로 구성되는 공동 연구 논문중의 제2부로, 필자가 책임 집필한 것이다.

제1부 耽羅語와 倭人語(김공철 담당).

제2부 耽羅語와 古代日本語(강영봉 담당).

1) 필자의 견해로는 濟州島方言이라 방언 명칭을 쓰고 싶다. 많은 학자들이 '제주도방언'이란 명칭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기 까닭이다. 그러나 주어진 과제 명칭에 따라 耽羅語라 명명하나 그 의미는 '제주도방언'이란 뜻이다.

2) 金公七, <方言學>, 正向出版社, 1977, 제9장 "方言의 系統", 참조.

다³⁾나 일본어는 고구려어(에 의해서 대표되는 扶餘系諸語)와 직접적인 親族관계에 있을 蓋然성이 매우 크다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李男德의 <韓·日語 比較方法에 있어서의 同根派生語研究에 대하여>이다. 이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아주 이른 시기에 韓·日共通祖語를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그래서 同根派生語의 비교 방법은 우리말의 어떤 語根을 선정하여 의미와 음운면에서 관련성이 있는 유의어군을 찾아내고 그들이 동근파생어임을 변화의 법칙을 적용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는 비교하려는 언어의 경우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동근파생어군을 색출하여 두 언어의 語群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⁵⁾ 이 정도의 연구 성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한국어와 일본어의 상관성이 드러나는 셈이며, 나아가 탐라어와도 비교 연구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들의 초점은 swadesh가 제시한 기초어휘(basic vocabulary) 200개에 따른 비교표를 제시하고 탐라어와 고대일본어 사이에 어느 정도 親疎관계가 있는가에 맞추어진다.

여기서 몇 가지 부연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고구려어가 일본어와 가깝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李基文에 따르면 고구려어 80여개중 30개가 같다는 것이다) 탐라어와 고대일본어 비교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탐라어(제주도방언)가 扶餘語系統일 개연성이(물론 그렇다고 하여 온통 북방계인 부여어에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남방계인 韓語와도 이어진다)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에서 출발한다.

둘째는 ‘탐라어’라는 명칭 문제다. 註1)에서도 밝혔듯이 대개의 학자들은 ‘濟州島方言’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小倉進平·河野六郎·崔鶴根·李基文·李崇寧·金亨奎·金敏洙 등⁶⁾이 그렇다. 유독 金敏洙만이 ‘濟州島(耽羅)方言’이라 하여 소괄호를 쳐 그 속에 耽羅라는 옛이름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탐라어’라는 명칭을 濟州島方言이란 개념으로 쓴다.

셋째는 古代日本語라는 시기의 문제다.

여기서는 편의상 대체적으로 8세기부터 시작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라 하여 둔다.

3) 李基文,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제4호, 1968, p.125.

4) 李基文, “韓國語形成史”(韓國文化史大系 V), 1967, p.69.

5) 李男德, “韓·日語 比較方法에 있어서의 同根派生語研究에 대하여”, 《韓國語 語源研究 I》,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p.108. 참조.

6)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의 研究》.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崔學根(1959), 《國語方言學序說》.

李基文(1961), 《國語史概說》.

李崇寧(1967), “韓國方言史”(韓國文化社大系 V).

金亨奎(1975), 《增補 國語學概論》 참조.

Ⅱ. 本 論

1. 韓國語와 日本語

서론에서 밝혔듯이 한국어와 일본어와를 비교할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 연구를 우선 살펴보는 게 차래다.

해방 이후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교 연구한 업적은 아래와 같다(이 연구 업적은 국내와 일본 학자의 것에만 국한을 시킨다. 그러니 자연 서구 학자의 업적은 제외될 수밖에는 없다. 또한 필자의 과묵한 탓도 있겠지만 주요하다고 인정되고 참고한 자료에 한함도 아울러 밝혀둔다.).

- 1948. 服部四郎, 日本語와 琉球語·朝鮮語·알타이어와의 親族關係
- 1949. 河野六郎, 古代의 日本語와 朝鮮語
- 1949. 長田夏樹, 原始日本語研究導論
- 1953. 櫻井芳郎, 高句麗의 言語에 관하여
- 1956. 李崇寧, 韓·日 兩語의 語彙比較攷
- 1957. 大野晋, 日本語의 起源
- 1962. 村山七郎, 日本語와 高句麗語의 數詞
- 1963. 村山七郎, 高句麗語와 日本語와의 관계에 관한 考察
- 1965. 宋 敏, 韓日兩國語 音韻對應試考
- 1967. 服部四郎, 日本語는 어디서 왔는가.
- 1968. 金善琪, 韓·日·몽 단어비교
- 1968. 李基文,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 1968. 朴炳采, 古代 三國의 地名語彙攷
- 1969. 宋 敏, 韓日兩國語 比較研究史
- 1971. 服部四郎, 朝鮮語의 系統과 歷史
- 1972. 李基文, 國語史研究
- 1973. 宋 敏, 古代日本語에 미친 韓語의 影響
- 1974. 金思燁, 古代朝鮮語와 日本語
- 1974. 村山七郎, 日本語의 起源
- 1975. 李基文, 韓國語와 알타이語語의 比較研究
- 1977. 李男德, 韓日語比較方法에 있어서의 同根派生語研究에 對하여
- 1980. 大野晋, 日本語의 成立
- 1985. 李男德, 韓國語 語原研究
- 1988. 辛容泰, 原始韓·日語의 研究

중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服部四郎은 일본어는 5·6천년 전에 한국어와 분리가 되어 오랫동안 일본에서 행해졌는데 그 중에는 北九州地方의 방언이 기원전 수백 년 전부터 같은 지방에 건너온 외래 문화인 彌生式文化 영향 아래서 일본 祖語로 발달하였다. 그때에는 외래 문화의 담당자인 異民族도 도래하였는데, 그 숫자에 있어서는 일본 민족보다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上層을 형성하는데 그치고 일본어의 언어적 핵심부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일본인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는 민족이 5·6천년 전에 南朝鮮에서 일본으로 도래했을 때 일본에는 원주민이 있어 그 언어가 일본어의 기층이 되었을 개연성은 있다⁷⁾고 보고 있다. 즉 北方語系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大野晋의 경우는 일본어 어휘 가운데에는 알타이계어와의 친근성을 조금밖에 찾을 수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 한국어와 비교에도 200여 어휘만이 비교 가능하여 소원한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南·北混淆說을 주장하고 있는 村山七朗은 소위 彌生式文化의 언어는 남중국 원주민의 언어 계통이며, 고구려어와 가까운 알타이어계 언어 사용의 征服族이 4세기 후반부터 일본에 건너와 彌生式文化의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곧 잡종이 되어 混淆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주장들은 자기네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일종의 자긍심(?)에서 얻어진 결과이다.⁸⁾

李基文은 고구려어와 일본어의 관계가 근접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주장은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음운면에 있어서,⁹⁾

① 고구려어와 일본어 및 통구스諸語의 비교는 前者가 語末母音을 缺하고 있는 사실을 자주 보여준다.

예 : xol(城) : 만주어 holo(谷)
 namil(鉛) : 일본어 namari(鉛)
 tal(山·高) : 일본어 take(嶽)
 tan(谷) : 일본어 tani(谷)

② 고구려어의 몇 예는 특히 고대일본어와의 비교에서 同語가 t의 구개음화를 경험했음을 추정케 한다.

예 : xolč(口) : 고대일본어 kuti(口)
 uč(王) : 고대일본어 itu(王)

③ 수사 '7'은 고구려에서 '難難'이었다. 이것은 고대일본어 및 통구스諸語의 同一한 수사와 흡사함을 보여준다.

7) 服部四郎, 《日本語의 系統》, pp.206~207.

8) 이들에 대한 비판은 李基文의 본문들을 참조할 것.

9) 李基文,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제4호, 1968, pp.126~130.

예 : 難難 : 고대일본어 nana : 통구스제어 nadan

- ④ 고구려어가 語末子溼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어는 그것을 缺하는 예들이 있다.

예 : tək(+) : 고대일본어 tōwo(+)

mi(三) : 고대일본어 mi(3)

pjəl(重) : 고대일본어 Fā(重)

- ⑤ 고구려어의 '呑·奴·内·惱' 등에서 보여주는 원순성 모음은 일본어나 통구스어에서는 a에 대응된다.

- ⑥ 고구려어의 '位'는 wi로 재구되어 wi가 i(wi-)i-로 변화됨을 추정할 수 있다.

어휘면에서는¹⁰⁾,

- ① 고구려어는 분명한 알타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 : 고구려어 mai(水)

몽고어 mören(江)

만주어 muke(水)

중세국어 물(水)

고대일본어 midu(水)

- ② 고구려어휘는 통구스語群·國語·일본어에 공통적인 色調를 질계 보여준다.

예 : 고구려어 koj(熊)

중세국어 곰(熊)

에벤키어 kuma(熊)

고구려어 na(壤)

만주어 na(地)

고대일본어 na(地)

신라어 nai(世)

- ③ 고구려어의 현존 어휘와 중세국어의 어휘는 현저한 공통항들을 보여준다.

예 : 고구려어 중세국어

as(橫) 잇(橫)

kimil(黑) 검-(黑)

kinr(文) 글(文·字)

šu(新) 새(新)

šū(牛) 소(友)

- ④ 고구려어는 한편으로 통구스語群과의 사이에도 현저한 일치를 보여준다.

예 : 고구려어 ma(堅) : 에벤키어 mapa(堅)

: 라무트어 maj(堅)

: 만주어 mangga(堅)

- ⑤ 고구려어의 현존 어휘가 통구스제어나 신라어·중세국어의 어휘와 공통항들은 그 지리적

10) 앞 논문, pp.132~137.

본포에도 일치할 보여준다.

⑥ 고구려어의 기본수사는 3·5·7·10인데, 7만 퉁구스諸語와도 공통적인 것이며 나머지 모두는 고대일본어 사이에서만 일치가 발견된다.

예 : 고구려어	고대일본어
3. mil	mi
5. uč	itu
10. tək	tōwo

⑦ 고구려어 어휘 속에는 古아시아語族에 속하는 길라크語와 몇몇 일치를 보여 준다.

예 : 고구려어 cam(根) :	길라크어 tjamr(根株)
고구려어 osaxam(兎) :	길라크어 osk(兎)
고구려어 畝(泉) :	길라크어 erri(江)

성과가 이 정도이고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2. 基礎語彙

이 基礎語彙(basic vocabulary)는 언어연대학 또는 어휘통계학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여 swadesh가 설정해 놓은 200개의 어휘를 말한다.

이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여러 언어를 연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된 것이다. 즉 미국 대륙에는 그들의 언어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헌이 없었고 본포 또한 상당히 복잡하였다. 비교연구조차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언어연대학이라는 한 방법이 출현을 보게 된 셈이다.

Swadesh 견해에 따르면, 기초어휘라는 것은 <모든 인류 집단 혹은 어떤 일정한 시대에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집단에 공통의 개념과 경험에 결부된 표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공통의 개념과 경험에 결부된 표현'에는 인류 공동이 표현하고자 하는 <일반성>과 아울러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은 시간이 경과에 따라 일정한 수도로 변화하여, 이 기초어휘에 한한 한 어느 민족의 언어든 1千年 후의 殘在率은 같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가정은 印歐語의 비교에서는 많은 성과를 올려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초어휘가 같은 계통에 속하는 언어들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그 분기 연대를 측정해 보는 데 목적이 있기에 다른 계통의 언어도 이 기초어휘가 원용되어야 하는 점이다.

Swadesh가 제시한 기초어휘의 개념 속에는 <중요성> 즉 중요한 어휘라고 한다면 '많이 쓰는 단어'가 우선 중요한 어휘가 됨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어휘'도 언어 집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당하다.

Swadedsch의 200개 어휘를 품사별로 나누어 보면 명사 97, 동사 57, 형용사 36, 기타 10 순으로, 物名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착안하여 李男德은 중요한 어휘는 인간의 심리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에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어 동사·형용사 어휘 조사표>¹¹⁾를 작성하고 있다. 이 조사표에 따르면 동사 464語, 형용사 200語가 선정되어 있고, 이를 다시 '중요성'에 따라 A·B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언어 집단마다 처한 여려가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타당한 처리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swadedsch가 설정해 놓은 200개의 기초어휘에 한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3. 基礎語彙 比較

이 기초어휘 비교는 swadedsch가 제시한 어휘를 앞에 세우고 탐라어(제주도방언), 고대 일본어 순으로 작성한다. 전사는 romanize(화)하고 탐라어의 전사는 아래와 같다.

자음			
ㄱ k·g	ㅋ kh	ㆁ k'	ㅇ n
ㄷ t·d	ㅌ th	ㄷ t'	ㄴ n
ㅂ p·b	ㅃ ph	ㅁ p'	ㅁ m
ㅈ c	ㅉ ch	ㅊ c'	ㄹ l·r
ㅅ s		ㅆ s'	

모음			
ㅣ i	ㅟ wi	ㅡ i(m)	ㅜ u
ㅑ e		ㅓ ə	ㅛ o
ㅕ ε		ㅕ a	ㅝ e

반모음
j·w

이중모음			
ㅈ ja	ㅊ je	ㅊ jo	ㅊ ju
ㅊ je	ㅊ je	ㅊ wa	ㅊ we
ㅊ wi	ㅊ we	ㅊ wi	o

그리고 고대 일본어의 경우는 金公七에 따랐다.

11) 李男德, <韓國語源研究Ⅱ>, 이대출판부, 1985, pp.66~91.

기초어휘	탈라어	고대일본어 ¹²⁾	비 고
1. all	mən/modo	mina	+
2. and	jəŋ/to	to	+
3. animal	cimswŋ	ikimono	
4. ashes	pulchi/ce	fafi	?
5. at	-isə	ni	
6. back	tuŋ	se	+
7. bad	nəs-	asi	
8. bark	kəpɕil	kafa	+
9. because	-me/-nan	yuwe/kara	
10. belly	pɛ	fara	+
11. big	khw-	ofo-	
12. bird	sɛŋi	tori/sagi	+
13. to bite	mul-	kam-	
14. black	kəm-	kuro-	+
15. blood	phi	ti	+
16. to blow	pul-	fuk-	+
17. bone	k'waŋ	fone	
18. to breathe	sumswi	suh-	+
19. to burn	tha-/k ^h a-	moyu	
20. child	awi	ko	
21. cloud	kurwm	kumo	+
22. cold	əl-/kokc ^h a-	samu-	
23. to come	o-	ku-	
24. to cut	se-	kazof-	
25. to cut	k'umh-	kir-	+
26. day	nac/nal	firu	
27. to die	cuk-	sin-	+
28. to dig	pha-	for-	+
29. dirty	tərəp-/kudum	kitana	+
30. dog	kɛ	inu	
31. to drink	masi-/nəmki-	nom	+
32. dry	məllw-/kwəl-	kawak-	+
33. dull	muk'i-	nibu-	
34. dust	kudum/menci	tiri	
35. ear	kwi	mimi	

12) 이 고대일본어는 金公七의 《日本語語彙》(1987, 學文社) pp.203~212에 따랐다.

기초어휘	탈리아	고대일본어	비 고
36. earth	t'ap	tuti	
37. to eat	mək-	kuf-	
38. egg	teksegi	ko	
39. eye	nun	ma/me	+
40. to fall	t'əlləci-	tir-/otu	+
41. far	məl-	tofo-	
42. fat	cirum	abura	
43. father	abap	titi	
44. to fear	mesəp-/os'akhə-	osor-	+
45. feather	cis	fane	
46. few	has'əl	sukuna-	
47. to fight	tathu-	tatakaf	+
48. fire	pul	fi	+
49. fish	parws-kwegi	uwo	
50. five	tasəs/tas	itu	
51. to float	thuw-	uk-	
52. to flow	hullu-/neri-	nagar-	+
53. flower	kocaj	faja	
54. to fly	nal-/t'w-	tob	
55. fog	wnap	kiri	
56. foot	pal	asi	+
57. four	nwis/jesəs/jes	yo	+
58. to freeze	əli-	kofor-	?
59. fruit	jerum	mi	
60. to give	anne-	ataf-	
61. good	choh-	yo-	
62. grass	phul	kusa	
63. green	phuri-	awo-	
64. guts	pəsəl	wata	
65. hair	məri-thərək	ke	
66. hand	son	ta/te	
67. he	kw	kare	
68. head	məri	kasira	
69. to hear	tut-	kik-	
70. heart	masim	kokoro	
71. heavy	pə-	omo	
72. here	idi	koko	
73. to hit	t'eri-	ut-	
74. to hold	kəc-/cəp-	mot-	

기초어휘	탈라어	고대일본어	비 고
75. how	ət'en	ika/adoka	+
76. to hunt	sanop'hə-	kar-	
77. husband	səban/nampjən	wofito	
78. I	na	wa/na	+
79. ice	ərwm/topkos	kofori	
80. if	-min	mosi	
81. in	an/anne	-ni/naka	
82. to kill	cuki-/cuk-	koros-	
83. to know	al-	sir	+
84. lake	mos	midzu'umi	+
85. to laugh	us-	waraf-	
86. leaf	s'əp	fa	
87. left	wenc'ak	fidari	
88. leg	kadal	asi	
89. to lie	nuk-/kəlləci-	koyu/nu	+
90. to live	sal-	ik-	
91. liver	kan	kimo	+
92. long	cil-	naga-	
93. louse	nui	sirami	
94. man	senai	wotoko	
95. many	ha-	ofo-	
96. meat	səl/kweki	sisi	
97. mother	əməp	fafa/omo	+
98. mountain	orum	yama/mure	
99. mouth	kulle	kuti	+
100. name	illum	na	
101. narrow	c'op-	seba-	+
102. near	kachap-/podi-	tika-	
103. neck	yagegi/mokdari	kubi	
104. new	sə	atarasi	
105. night	pam	yo	
106. nose	kho	fana	
107. not	ani	na-/ina	
108. old	nulk-	furu-	
109. one	həna	fito	
110. other	thəna-/t'əna	hokasi/atasi	
111. person	sarum	fito	
112. to play	nol-	asob-	
113. to pull	tenki-/təri-	fik-	

기초어휘	탐라어	고대일본어	비 고
114. to push	milli-	os-	
115. to rain	neri-	fur-	
116. red	pulk-	aka-	
117. right(correct)	mac-	masasi	+
118. right(hamd)	nedanphen	migi	
119. river	ne/kaŋ	kafa	+
120. road	cil	miti	
121. root	pulhwi	ne	
122. rope	pe/no/chin	tuna/turu	
123. rotten	sək-/sak-/kuri-	kusar-/kut-	?
124. to rub	pubi-	sur-	
125. salt	sogom	sifo	+
126. sand	mosal	isago/sunago	
127. to say	ket-/seru-	if-	
128. to scratch	kwk-/kokcu-	kak-	+
129. sea	padan/nabul	umi/wata	+
130. to see	po-	mir	
131. seed	s'i	tane	
132. to sew	nubi-/cup-	nuf-	+
133. sharp	nesil-	to-	
134. short	c'ellu-	mizika-	
135. to sing	pullu-	utaf-	
136. to sit	an-/anci-	wir-	
137. skin	kacuk/k'ak	kafa	+
138. sky	hanwl	sora	+
139. to sleep	ca-/nup-	nu/inu	+
140. small	cek-	tkfisa-	
141. to smell	mathu-	kag-	
142. smoke	ne	keburi	
143. smooth	mincirəp-	namer-	
144. snake	pejəm	femi	
145. snow	nun	yuki	
146. some	ət'əŋ	aru/iku	
147. to spit	pak'u-	fak-	+
148. to squeeze	p'a-	shi-	
149. to spilt	chici-/pəllu-	sak-/war-	
150. to stab	c'illu	cuk-sas-	+
151. to stand	sa-	tat-	
152. star	pel	fosi	+

기초어휘	탐라어	고대일본어	비 고
153. stick	c'okak	woki	
154. stone	tol	isi/to	+
155. straight	kwatc'ak/kuc'ak	nafosi-/fukur-	
156. to suck	p'et-	suf-	
157. sun	he	fi	
158. to swell	pus-/piu-	far-fukur-	
159. to swim	hwi-/kom-	oyog	
160. tail	cholli	wo	
161. that	cə	kare/so	+
162. there	kuudi	kasiko	
163. they	kuulmi	karera	+
164. thick	tuk'əp-	atu-	
165. thin	jallu-	usu-	
166. to think	neki-	omof-	
167. this	igə/i	kore	
168. thoa	nw	na/nare	+
169. three	se/sə	mi	
170. to throw	tek'i-/machi-	nag-	
171. to tie	muk'w-	musub-	+
172. tongue	se	sita	+
173. tooth	nwi/i/nwip'al	fa	
174. tree	naŋ/nam	ki	
175. to turn	tolli-/kamcantol-	magar-	
176. two	tul/tubul	fata	
177. to vomit	nechi-	fak-	
178. to walk	kət-	aruk-/kati	+
179. warm	t'et'oshə-	atataka	
180. to wash	sichi-/pose-	arar-	
181. water	mul	midzu	+
182. we	uri	ware	+
183. wet	cəc-	nur-	
184. what	musin	nani	
185. when	ənuce	itu	
186. where	ədi	iduku	
187. white	hwi-	siro-	+
188. who	nuge	ta	
189. wide	nəllu-/pənbənhə-	firo-	
190. wife	kaksi	tuma	

기초어휘	탐라어	고대일본어	비 고
191. wind	perum	kaze	
192. wing	nelgegi	fane	
193. to wipe	tak'm-	nogof-	
194. with	-jən/-kwaj	-to	
195. woman	jephen	womina	
196. woods	koc	fayasi	
197. worm	pərepi	musi	
198. ye	nəne	nare	+
199. year	he	tosi	
200. yellow	nuri-	ki	

위 자료에서 + 부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의 음운 대응을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 같은 음의 대응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사뭇 다른 음운으로 보이는 대응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t- : s-	-l : -s 또는 -i
-l : -ϕ (zero)	-l : -d
-l : -ŋ 또는 -i	-r- : -m-
-i : -r	-m : -r-
t- : y-	n- : m-
p ^h : t-	c- : s-
-g : -n	h- : s-
h- : ϕ (zero)	

이렇게 대응 관계를 고려한다면 +부호가 부여된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설명을 요하는 어휘들이 있다.

10. 번은 겹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비(腹)'도 중세국어 *비리形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¹³⁾ 제주도방언에서도 '배가 불쑥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배래기 내밀엉(불쑥 내밀어)'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본다면 그 유연성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16. 번 어사도 모음 다음 자음이 각기 l과 k로 대체되는 듯이 보이지만 PVr 계열에 해당하는 어휘가 된다. Faru가 '팽창하다, 부르다'의 의미이고 나아가 '붓다'의 뜻도 지니고 있으니 탐라어와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

25번 어휘는 *kol(分)을 의미하는 karu(刈), kiru(切)와 제를 같이 하고 있다.

27. 번 '죽다'는 語頭에서 c와 s이 대응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죽다'의 의미를

13) 李男德, 《韓國語語源研究 I》, 이대출판부, 1985, p.113.

저속하게 표현하여 '숨그차지다'라는 표현이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절로 말음 k와 n와는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는 셈이 되니 +부호를 부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29.번 어휘도 k-d-m대 k-t-n의 좋은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32.번 어휘는 얼른 보기에 대응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사다. 우리는 kawak-가 kawalk에서 (즉 -Vlk가 -Vk로 변화하는 과정) -lk를 인정하면 별문제 없이 대응된다.

44.번은 어두음 탈락으로 보이며, 아니면 os'ak'həda로 보아 무서운 상태에서 몸에 자잘하게 솟는 '소름'의 방언형인 teksol로 본다면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48.번 어휘는 어두음에 다같이 양순음이 위치하고 있는 점과 -i:의 대응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56.57.번은 대응 관계로 비교 가능하고, 58.번 어휘는 '얼리다'의 뜻에 주안점을 두어, 결빙된 상태에서는 출계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22.번 어휘와 연관시켜 생각할 때, '곡차다'란 방언형이 존재하므로 비교가 됨직도 하다.

81.번 李男德의 주장대로 anak(内)가 *anak>naka(中)와 *anak>ana(穴) 둘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84.번 어휘는 midzu'umi에서 '바다'를 뜻하는 umi를 제외시킨다면 좋은 비교가 된다.

89.번 어휘는 nuk : nu와 kəlləci- : koyu 두 어사 다 비교 가능하다.

123.번 어휘도 kuri- : kusar-로 본다면 비교될 가능성도 있다.

138.번 어휘는 어두 위치에서 h : s의 대응과 함께 n→r의 교체로 본다면 +부호를 붙여도 좋을 것이다.

149.번 어휘도 p>w 현상을 감안하면 비교 가능하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공통잔조어는 아래와 같이 된다(기초어휘 항목 번호만 보인다).

1	2	6	8	10	12	14	15	16
18	21	25	27	28	29	31	32	39
40	44	47	48	52	56	57	(58)	75
78	83	84	89	91	97	99	101	117
119	(123)	125	128	129	132	137	138	139
147	150	152	154	161	163	168	171	172
178	181	182	187	198	계 57(59)			

4. 分裂時期

이제 3항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탐라어와 고대일본어와의 분기 연대를 측정할 단계에 와 있다.

먼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기로 하자.

服部四郎은 한국어와 일본어와의 분기 연대를 멀게는 1만년 전에 짧게는 4·5천전에 분열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어는 일본어조어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문화 유입 경로로 볼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그가 말하는 "일본어는 5~6000년전에 한국어와 분리하여 오랫동안 일본에서 행해졌었는데 그 중 北九州지방의 방언이 기원전 수백년 전부터 같은 지방에 도래한 외래 문화인 彌生式文化의 영향 아래 日本祖語로 발달하였다"는 내용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 日本祖語와 2천년 전의 彌生式文化(語)하고 관련성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村山七郎도 기마민족설에 근거하여 4세기 후반에 들어온 北方系語와 先日本語와 250년 동안 싸움에서 北方系語의 우위로 일본어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1,700년전 이전에 한·일어가 분기된 것을 고수하여 服部四郎의 견해에 일부러 일치시키려는 인상이 짙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

앞에서 살핀 기초어휘 비교표에 따르면 한·일 兩語 사이에 공통잔존어 어휘 개수가 자못 많다. 곧 57語 내지는 59語가 되어 그 비율이 28.5%~29.5% 된다. 근 3분지 1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⁴⁾ 服部四郎이 주장처럼 분기 연대가 오래되어서 잔존어 비율이 10.8%~19.4% 밖에 안 된다는 것과는 그 잔존어 비율이 높아 서로 배치된다.

언어연대학(glottochronology)은 언어의 비교 또는 역사적 연구에 통계학을 적용시킴으로써 공통조어에서 갈라져 나온 분기 연대뿐 아니라 나아가 갈라져 나온 언어들 사이의 관계의 친소 정도를 밝히려는 데 있다.

그래서 기초 어휘 중에서 분기 연대를 측정하고자 하는 두 언어가 공유하고 있는 동족어의 비율을 c 라 하고, 천 년 동안의 기초 어휘가 보존되는 비율을 r 이라고 한다면 그 두 언어의 분기 연대는 $\log c \div 2 \log r$ 에 대입시켜 보면 알 수가 있다.

물론 이 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기초 어휘가 어떠한 객관적 기준 밑에서 선정되었느냐 하는 점, 기초 어휘 잔존 비율이 언어마다 같은가 하는 점이다.

Swadesh가 작성한 기초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분기 연대 공식에 따라 印歐語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리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도출해 낸 공통잔존어는 57~59語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28.5%~29.5%가 된다. 이를 분기 연대 공식에 대입하면 $\log 29 \div 2 \log 85$ 에서 약 780년이란 기간을 얻어낼 수가 있다. 비교 대상이 된 고대 일본어가 8세기경에서 출발하는 이른 시기의 문헌어이다. 분기 연대 780년과 다시 7,800년을 가산하면 탐라어와 고대일본어의 분기 연대는 지금서부터 약 1,500년 전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14) 이 비율은 李男德의 견해에 따라 동근파생어를 인정한다고 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은 많다.

Ⅲ. 結 論

아직까지 탐라어와 주변 언어와의 비교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이 글은 이 영성한 연구 성과(업적)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였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논의 전개울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우리들의 초점은 韓·日 兩言語의 친족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분기 연대가 언제쯤이었을까 하는 추정에 머뭇거리는 태도에 있었다.

일본학자들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건강회부라는 반론이 있었을 뿐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공자의 연구 성과에 힘을 빌어 언어연대학의 방법으로 한·일 두 언어의 분기 연대를 탐색하려 했다.

특히 李基文의 고구려어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빌어 한·일 두 언어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난 이후, 탐라어가 부여계어의 영향이 짙다는 개연성 아래 탐라어와 고대일본어를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服部四郎이 제시한 공통잔존어 비율인 10.8~19.4% 보다 훨씬 상회하는 28.5~29.5%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일 두 언어의 분기 연대가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언어연대학의 분기 연대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지금서부터 1,500여년이 그 분기 연대 상한선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여어제인 고구려어가 탐라어에 얼마마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고구려어의 특색이 탐라어에 나타나고 있어, 영향이 있었으리라는 개연성에서 출발했다. 탐라어에 내재되어 있는 더 많은 고구려어의 특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기초 어휘 문제다.

Swadesh가 선정한 기초 어휘 목록이 어느 언어에나 타당성 있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런 점은 감안할 때 李男德이 제시한 동사·형용사조사표는 뜻 있는 작업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교 방법에 있어 완벽한 음운 대응 원리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한·일어를 비교한 학자마다 나름대로의 대응 원리를 세우고 있지만 그 모두를 그대로 수요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호를 단 어휘들이 그야말로 완벽한 음운 대응이 되느냐에는 아직도 의심이 가지지 않는다. 특히 고대일본어와의 비교라는 시기적 제한 사항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Summary

A Study of the Tamla Language :
A Comparison with Old Japanese

Part II. The Tamla Language and Old Japanese

Kang Young-b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assess the diversification period of Korean and Japanese by comparing the Tamla language and Old Japanese.

Based on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of other scholars and glottochronological methodology, I was able to find 57-59(28.5%-29.5%) glottochronological words out of Swadesh's basic vocabulary list of 200 words. This figure contrasts with Hattory Shiro's previous claim (10.8%-19.4%).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eems to suggest that the diversification of Japanese and Korean may have occurred at a more recent period than some Japanese scholars suggest.

Based on the glottochronological formula of assessing the diversification periods of languages, I suggest the two languages may have diverged about 1,500 years ago.